

제2외국어·한문 추가 3개 영역 절대평가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과목' 형태로 바뀌

사람·과탐 문·이과 구분 없어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영역의 문·이과 구분이 사라진 계획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기존 영어와 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까지 더해져 3개 영역에서 절대평가가 시행된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제2외국어·한문' 영

역 가운데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 아닌지라도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체 평균 점수가 낮은 아랍어에 응시하면,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탓에 '아랍어 풀림 현상'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아랍어 등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평가는 유지하지만 '공통+선택과목' 형태로 바뀌는 국어와 수학 영역의 문항 유형은 현행 수능과 동일한 객관식 '오(5)지선다' 형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전체 문항의 30% 수준인 9문항을 단답형 주관식 문항으로 출제할 예정이다.

국어와 수학 시험지는 공통과목·선택과목이 합쳐진 한편으로 제공되는데,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찾아서 응시해

야 한다. 자신이 응시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을 풀다가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진다. 사람과 과탐 계열 구분 없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등 총 17개 과목 중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사람과 과탐 과목 각각 1개씩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직업탐구 영역은 1개 과목만 치르려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의 기초 ▲인간 발달 등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보면 된다. 2개 과목을 치르려면 전문공통과목인 '성공적

인 직업생활'을 추가로 응시해야 한다.

EBS 연계율은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 이후 확정된 대로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문항 역시 간접적으로 지문 등을 활용해 출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EBS 교재 위주로 학교 수업이 이뤄지거나 과도한 지문 암기로 수능에 대비하는 등 학교 교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사 영역은 여전히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영역별 총 문항 수와 배제, 시험시간과 순서는 변동 없이 동일하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로 예정되었으며, 자세한 시행 기본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수능이 크게 바뀌는 만큼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의 예시 문항을 개발해 2020년 5월경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0 달뜨기 18:08
해질 19:24 달지기 03:25

다시 폭염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다.

광주	구름많음	26/34	보성	구름많음	24/32
목포	구름많음	26/33	순천	구름많음	26/34
여수	구름많음	26/33	영광	구름많음	26/34
나주	구름많음	25/34	진도	구름많음	26/32
완도	구름많음	26/32	전주	구름많음	26/35
구례	소나기	24/34	군산	구름많음	26/33
강진	구름많음	25/33	남원	소나기	24/34
해남	구름많음	25/33	축산도	구름많음	24/30
장성	구름많음	25/3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1.0~2.0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동~남	1.5~2.5	남~남서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 생활지수

위험	☀️	☀️
매우 높음	☀️	☀️
좋음	☀️	☀️

◇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날씨	☀️	☀️	☀️	☀️	☀️	☀️	☀️
기온	26/34	26/32	25/31	24/32	23/33	23/33	23/32



"전범국가 아베정권 경제보복 철폐하라"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12일 광주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달아오른 한·일 갈등 속

74주년 광복절 행사 다채

한·일 갈등 속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선현들의 독립정신을 조명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로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 남구는 15일 광복 제74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친일·항일 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는 장애인 그룹 '해와 달 밴드'의 '들이 타는 자전거' 공연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에 불렀던 '애국가'를 비롯한 친일 음악가인 조두남·홍난파·현제명이 만든 '선구자', '희망의 아침', '희망의 나라' 등을 불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친일 노래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시 낭송가 김현서씨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띄운 편지를 낭송하고, 주하주씨가 무대에 올라 대표적 항일 시(詩)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운동주의 '서시'를 노래로 선보인다.

출연진·시민들은 '암록가 행진곡'과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14일 남구와 광산구에서는 각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문화제가 열린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남구 평화나비'는 오후 4시부터 양림동 평민마을 입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정부 규탄 선언문 낭독·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손글씨·손도장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광산구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은 오는 14일 오후 7시~8시30분 광산구 송정동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슬로건으로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전남대학교 '지역상생발전·문화교류' MOU

광주시 북구가 전남대학교와 함께 지역 발전 및 문화진흥 활성화를 나선다.

북구와 전남대는 12일 지역사회와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 및 문화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자원 재능 기부 등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지역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연계 등이다.

북구와 전남대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차례의 '북구 경관디자인 벽화사업'을 실시하고 8회에 걸쳐 '주민참여 동아리 야외영화제'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북구 일자리 엑스포 및 취업 관련 특강강연 등의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해경, 신안 임자도 전장포구 기름때 대대적 정비

목포해경이 신안 임자도 전장포구에 해양오염물질인 기름때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해경은 "지난 9일 신안 임자도 전장포구 해안가에서 항포구 환경개선 일환으로 포구에 쌓인 폐유 2000ℓ와 폐윤활유 등 120여개를 수거했다"고 12일 밝혔다.

196여척(1t 이상 30t 미만)의 선박이 날마다 입·출항하는 신안 임자도 전장포

구는 선박정비 후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유 때문에 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폐기물수거업체도 수거를 거부함에 따라 해경은 임자도사무소,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수거에 나서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폐윤활유 및 용기를 수거에 반납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kwangju.co.kr

올 강수량 적어 담양·장성 등 전국 50여 지자체 가뭄 주의보

평년보다 올해 비·눈이 적게 오면서 전남 일부 지역에 가뭄주의보가 내려졌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담양·장성 등 10개 지역에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가, 서울·인천 등 41개 지역에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주의 단계는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다. 최근 6개월(2~8월) 간 남부지역 누적강수량은 평년(758.7mm)의 84%(637.3mm)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2.4%(555.9mm)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진도지역 섬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용수를 비상급수하고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협의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80-815-8150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금융상품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5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 내외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지역경제까지 생각하는 지역특화신협 '아부바' (연주 한차)
-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돕는 지원센터 설치
- 군산·거제 등 고령·산림 위기지역 1천여 무주택·무이자 대출
- 3~7세 아동·65세 이상 차제노인 위치알리미 무료 보급
- 65세 이상 조합원 헬스케어 '아부바' (효(孝)애니케어)

은행사명: 2019-178 (2019.7.26) / 유/8/21: 2019.8.7-2020.8.31

평생 아부바 신협